

익산시, 중소기업 지원 '전력'

3개 분야 · 21개 사업에 210억 투입... 분야별 맞춤형 정책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 · 경쟁력강화 · 지역경제 동반 성장 기대

익산시가 지역 산업의 버팀목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쏟는다. 시는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를 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10여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추진 사업은 △자금경영안 해소 △경쟁력 향상 △인재경영·근로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21개 사업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한다.

먼저, 시는 185억원 규모의 용자금 이차 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당 2억 원 한도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 이자의 3.0%를 지원한다. 특히 일자리 우수기업, 여성기업, 향토기업은 추가로 0.5%가 가산돼 최대 4.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인구관심지역 특례보증 금융 지원사업은 대상이 확대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동안 이자의 2%를 지원한다.

익산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 대응하고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육성지원 사업은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수출기업 보증보험 지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국내외 시장개척단 지원 등 5개로 총 5억 원이 투입된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은 특허맵과 신규브랜드 개발 등 맞춤형 지식 재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기업 보증보험 지원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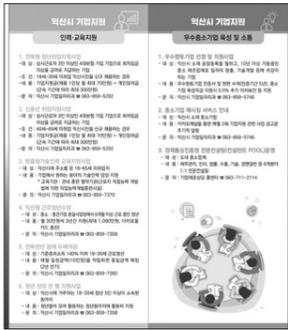
이어, 시는 지역 중소기업을 구직자들이 찾는 일터로 만들어 가기 위해 근로여건 개선에 힘쓴다. 이를 위해 사업장 사고예방 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중장년(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 등 14개 사업에 19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자 3선단 출·퇴근버스 임차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시기별로 익산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지원사업과 행사 등을 안내하는 기업정보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일 2회 익산시 알림톡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업일자리과(063-859-5746, 5743)로 문의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민생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산업 혁신을 앞당기고 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이재춘 기자

민관 협력으로 재가 의료급여사업 강화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원대병원 - 8개 요양병원, 간담회 개최

익산시가 재가 의료급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6일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실과 8개 요양병원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퇴원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행정기관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광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실은 지난해 3월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자체·복지기관·의료기관 간 연계와 통합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연계 플랫폼인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 퇴원환자 정보를 공유해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성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지역 요양병원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협력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들에게 더욱 향상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필수요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원광대학교병원이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공식 출범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공공의료연계망'을 통해 퇴원환자 정보를 공유해 익산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성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지역 요양병원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협력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상자들에게 더욱 향상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필수요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원광대학교병원이 익산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공식 출범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실시

7 ~ 내달 4일까지 진행

군산시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조사 기종일(지난해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군산시 관내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 수립 및 평가,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종

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총 10개 항목이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예정이나 대상 사업체가 비대면 조사를 원할 경우에는 전화조사,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사업체 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오는 9월에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12월에 확정해 군산시 누리집 게시 및 국가통계포털에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사업체 조사와 관련해 질의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군산시 통계조사실(063-454-7932~8) 또는 통계청 콜센터(080-001-202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구도심 상권활성화 성과공유회 개최

시의회 의원 · 기관 · 단체 등 참석... 향후 발전 방향 · 의견 교류 등

군산 구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상권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성과공유회가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6일 군산공설시장 청년물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군산시의회 경제건설분야 의원들과 기관단체, 구도심 권역 내 창업가 2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사업 성과물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창업지원, 온라인 판로 확대, 새로운 소비 유행과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 협력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해 점점 어려워만 지는 구도심 골목상권의 부활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20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군산상권활성화사업은 구도심 상권의 노후화된 상권환경개선과 구도심 권역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

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군산의 경우 지역 창업가들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면서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 오래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점차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폐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켜 활력을 찾아 만들어낸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부처 간 협력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 상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친환경생선건조장 건립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로 상인협업화(수산물협동조합)운영 등으로 각종 수 상경력과 실제 매출 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전진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군산 구도심 상권 내에서 창업한 청년 상인 가계도 40여 개로 현재까지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상품 개발이 빛을 보면서 해외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 역시 새로운 유통 관련 유행을 습득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참여 등으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평을 받고 있다.

사업에 대한 평가도 높다. 2021년 전국상권활성화우수사례로 중기부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사업 기간 5년 동안 군산시청, 소속 상인회, 사업단 등이 장관상만 5회를 수상하였다. 2023년에는 군산시 상권에 최초로 대통령 상을 수상하면서 전국 최고의 상권 사업으로 공인받기도 했다.

사업을 추진해 온 신지양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르네상스사업단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하여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의지를 공유하고, 상권의 다양한 주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군산시와 사업단은 지역 상인, 청년창업자, 상권지원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상권활성화 모델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